

경남도, 진주상평산단 구조고도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 조성 단지환경 개선 등 총 376억 투입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단 구축”

경남도가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진주시 상평동과 상대동 일원에 조성돼 운영중인 상평일반산업단지의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준공한지 40년 이상인 노후산단으로 205만 7627㎡ 규모이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158만 2896㎡, 지원시설용지 12만4579㎡, 기반시설용지 35만 152㎡ 등 총 3개의 용지로 계획돼 있다.



진주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이번에 반영된 구조고도화계획은 진주 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부지면적 5445㎡와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혁신지원센터와 연면적 5986㎡와 건축면적 1672㎡ 2개동의 복합문화센터다. 혁신지원센터 사업은 산업단지내 입

주기업의 기술·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관을 집적화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국비 공모사업이다.

또 복합문화센터 사업은 산업단지유희부지(공간)에 문화, 복지, 편의기능 등이 집적된 복합센터를 건립, 산업단

지 내 부족한 정주·편의시설 확충하는 국비 공모사업을 말한다.

진주 상평산단 구조고도화계획은 지난 2019년 통합센터(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했다.

시는 이번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오는 8월 착공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단계별로 ▲스마트 산단 구축사업, ▲고부가가치 산업기업 육성사업, ▲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376억 원(국비 212, 시비 133, 민간 31)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중 통합센터 조성사업은 138억 원(국비 66.3, 시비 71.7)을 확보해 진행된다.

또한 입주업체의 첨단·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 기반(R&D 인프라) 및

문화·복지·교통·편의시설 확충 등 스마트 산단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센터를 조성해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업종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 상평산단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재생사업비 466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집중해 투입하고 있어, 앞으로 밝은 산단 이미지 개선에 따라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노후된 진주상평산단에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산업단지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서진석 기자 call0001@metroseoul.co.kr

LGU+, 광주·대구 ‘U+언택트스토어’ 오픈

휴대폰 개통 등 통신업무 셀프 이용 대구점 내 ‘1인 스튜디오’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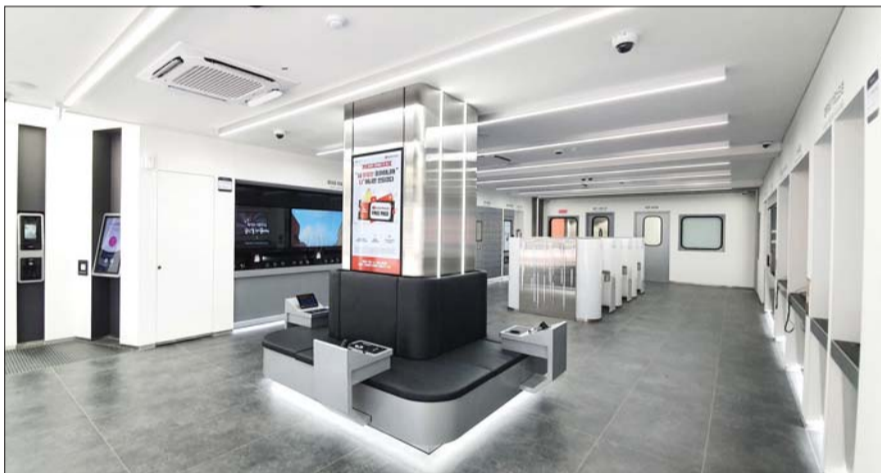
LG유플러스가 셀프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는 매장을 연다.

LG유플러스는 대구 중구와 광주 동구에 무인매장 ‘U+언택트스토어’ 2호점과 3호점을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U+언택트스토어는 ▲기기변경, 신규 가입, 번호이동 ▲유심개통, 요금 수납, 번호 변경 등 통신업무 처리 ▲최신 스마트폰 사양 확인 및 비교 ▲아이들 나라 등 홈서비스 체험과 같은 서비스를 고객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무인화 매장이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에 1호점을 선보인 바 있다.

대구 통신골목점과 광주 충장로점은 1호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셀프개통, 통신 업무 처리 등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호점보다 2배 이상 넓어진 대구 통신골목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셀프 사진 촬영이 가능한 ‘1인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MZ세대(1980~



U+언택트스토어 대구 통신골목점 내부.

/LG유플러스

2000년대 출생)가 선호하는 요소를 반영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U+언택트스토어는 24시간 운영하며, 오프라인 매장 휴무일과 전산 시스템 마감 후에는 개통을 제외한 가입정보 조회, 요금 납부, 요금제 변경 등이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주말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7시까지 상담원 호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안에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도 U+언택트스토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성순 LG유플러스 채널혁신담당은 “향후 U+언택트스토어는 고객 반응을 토대로 더욱 개선해 선보일 예정”이라며 “상징적인 의미에서 머무는 무인매장이 아니라 고객의 숨은 요구를 파악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

보성군, 폭염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콜매트 200개 방문 전달

보성군 벌교읍은 생계·주거·의료 위기가구를 찾아 협압·혈당 체크 봉사 등 현장 방문 조사를 시작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노인,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공적 지원은 물론 후원 물품 및 생계비,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폭염기가 시작되고 코로나 19확산이 지속되면서 가정에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성군 관계자가 생계·주거·의료 위기가구를 찾아가 콜매트를 전달 하고 있다.

가정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호물품 ‘콜매트’ 200개를 긴급 구입하여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방문 전달했다.

/보성(전남)=문생환 기자 m8527188@

신안군 ‘1004섬신안카드’ 출시

신안군이 카드형 ‘1004섬신안상품권(이하 1004섬신안카드)’를 출시했다. 발급을 시작한 1004섬신안카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전금액에 따라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방식으로 한국조폐공사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내 농협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1004섬신안카드 출시기념으로 개인당 월 50만원까지 특별할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30% 혜택도 적용된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담양대나무 신산업, 지역뉴딜 최종선정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기술개발 추진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서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으로 전국 252개 신청사업 중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종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 전국 161개 지자체가 252건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제출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 전문가·시도대표단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담양군이 제출한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시설을 통한 대나무 연구시설 및 인력 확충, 기후변화 대응식물로서 다양한 대나무 자원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나무산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후 변화 대응 식물인 대나무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담양이 전 세계의 대나무신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전남)=최형성 기자 dudtkd2343@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모집

선정 단체, 교통비 등 500만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2021년 농촌재능나눔 소규모 봉사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봉사단체를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개인, 일반단체, 동아리, 가족 등 소규모 단체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스마트재능뱅크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활동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 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4개 분야 50여개 세부 활동분야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농촌재능나눔 관련 분야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5개 소규모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체는 8월부터 10월까지 농촌마을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는 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보험료 등 소모성 활동 경비에 대해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게 된다.

/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도 9월까지 가금농장 일제점검

전라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가금농장 일제 점검과 함께 11월까지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가금 전업농장 699호다. 축종별로 점검기관을 구분해 1차로 7월 말까지 전체 가금농장 점검을 완

료한 후, 미흡농장은 9월 말까지 재점검한다.

전실, 방역실, 울타리, 그물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과 출입구 차량·대인 소독시설 등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AI 발생농장에서 확인한 방역 미흡사항 및 권고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